

리서치팀

☎ 82-2-3774-0451

1. 통화전망

(1) 달러/원(선물)

예상 레인지: 1,095원~1,129원

방향성: 강보합

금주 달러/원은 증시 변동성 확대와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한 위험선호심리 후퇴에 따른 외국인 증시 순매도 가능성에 상승 우위를 전망. 다만 미국 증시에서 일부 종목의 투기성 매입으로 변동성이 확대 된 만큼 해당 이슈 종료될 경우 환율 고점 인식으로 인한 매도물량 유입될 가능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또한 춘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에서 단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어지며 타이트한 위안화 자금 시장 여건은 위안화에 하락 압력을 가하며 달러/원 상단 제한 요인.

(2) 유로/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1.2100~1.2400USD

방향성: 약보합

금주 유로/달러는 글로벌 달러 강세와 유로존 4분기 더블딥 가능성에 약세 우위를 전망. 2월 1일 유로존 4분기 GDP예비치가 발표될 예정. 1~2분기 침체 후 3분기 12.5% 반등했으나 팬데믹 재확산 영향으로 금번 재차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확대. 지난 주 발표된 프랑스(-1.3%)는 재위축. 유로존 1월 마켓 제조업 PMI지수도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3일 발표되는 1월 서비스업 지수도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확대. 또한 유럽연합회원국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산 차질로 초기 유럽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모더나도 백신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하며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유로화 약세 요인. 다만 미국에서는 민주당 하원 의장이 공화당의 동의 없이도 부양책 통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금주 민주당 추가 부양책 법안 처리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중장기 달러 약세 흐름이 유로/달러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임.

(3) 엔/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0.96000~0.98000USD

방향성: 약보합

금주 엔/달러는 민주당 부양책 논의를 앞두고 미국채 금리 상승 가능성에 약보합 전망. 지난 주 엔화는 위험선호심리가 후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서 강세를 나타내기 보다는 글로벌 달러 강세와 연동해 약보합권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이어갔음. 금주 민주당은 본격화된 바이든 대통령의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 민주당의 부양안 규모에 따라 미국채 금리 상승할 경우 엔/달러에 약세 압력을 더할 수 있음. 다만 뉴욕증시 공매도 이슈 해소로 달러 강세 조정될 수 있음. 이점은 백신 공급 차질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수요 회복으로 엔/달러 하단 지지할 것으로 보임.

2. 지수전망

(1) S&P500(선물)

예상 레인지: 3,500~3,850 pt

방향성: 강보합

금주 뉴욕증시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와 개인 투자자들과 헤지 펀드간 공방 주시하며 강보합권 등락을 전망. 지난 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결한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과 AMC등 일부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해당 종목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헤지펀드들이 강제로 다른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당분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한 개인과 헤지펀드간 공방 이어지면서 시장 변동성 커질 수 있음. 다만 증시 밸류에이션 논란으로 투자자들이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와 미국 부양책 이슈 소화하며 강보합권 등락할 것으로 보임.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대부분이 양호한 순이익을 기록한만큼 일부 종목 관련 혼선이 진정되면 증시 강세 추세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상품전망

(1) WTI(선물)

예상 레인지: 46~54.00 USD

방향성: 약보합

금주 WTI(국제유가)는 백신 배포 차질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여행 제한 조치에 약세 우위를 전망. 세계 2위의 원유 소비국인 중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로 설 연휴를 앞두고 새로운 여행제한 조치를 실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백신 유럽 행 수송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원유가격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 항구 폐쇄로 공급 차질을 빚었던 리비아의 반군이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조만간 생산이 원상 복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유가에 하방 압력을 더할 것으로 보임

(2) 골드/실버(선물)

예상 레인지: 1,830~1,930USD

예상 레인지: 23.00~30.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금 가격은 글로벌 주요국의 완화적 정책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감 확대되며 상승 우위를 전망.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공급 차질로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실물 수요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완화적인 정책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임. 특히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회복으로 글로벌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정부 주도의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 증대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회복세가 더해지고 있으며, 중국산 소비재와 중간재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대체자산 수요로서 금 가격은 지지될 것으로 보임.

본 자료는 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www.futures.co.kr)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